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구미석유산업의 구조변화 (上)

-메이저와 준메이저로 보는 「제자리 찾기」의 실태-

최근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및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전략에 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이 석유산업에 있어서 「인티그레이션(통합)」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요컨대, 1970년대 이전에 보여주었던 「석유흐름의 중시」의 수직통합의 움직임에 대신하여 (페르시아만 산유국을 중심으로 종래의 수직통합지향의 기업도 일부 존속하고 있는 곳도 있다.) 자사내의 수직통합이 아닌 시장지향 (Market Oriented) 을 특성으로 한 새로운 「통합」전략을 표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지역으로의 특화 및 사업의 「분산」화를 경영전략으로서 표방하는 기업도 출현하는 등 시장의 글로벌화가 진전하고 있어, 구미석유산업에 있어서 「제자리 찾기」가 서서히 선명화하고 있다.

첫머리에

페르시아만 위기이후의 국제석유수급과 원유가격의 동향을 보면 선진소비국에 있어서 석유수요가 침체상태에 빠지고 있고, OPEC(석유수출국기구)·非OPEC산유국에 의한 증산, 구소련의 서방측으로의 석유수출의 증가등에 영향을 받아 원유가격은 비교적 저수준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국제석유기업(메이저)의 기업전략동향을 보면, 다음의 네가지 점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 상류부문(원유생산)의 공급원의 지역적 다각화와 투자의 중점을 고코스트유전의 북미지역을 피해 북미지역외로 전환하는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전략

2) 금후 대폭적인 수요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천연가스개발을 한층 중시하는 천연가스 사업부문의 증강 전략.

3) 모든 조업분야(특히 간접부문)를 합리화하는 것에 의한 코스트삭감전략.

4) 정제부문에 있어서 산유국과의 비즈니스 제휴 및 급성장을 목표로 한 아시아의 석유·천연가스 시장으로의 투자 확대를 겨냥한 하류부문(정제·제품판매)의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이러한 가운데 국제석유정제의 변화에 따라 구미 석유산업에 있어서의 세력분포에도 최근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및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상대적 지위가 분야에 따라서는 대규모경영의 메이저에 비해 향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석유산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석유기업은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Standard Oil Trust) 및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 해체후의 세븐시스터즈로 상징되듯이 인티그레이션(통합)에 의한 규모확대에 의해 이익을 누려왔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우디아라비아, 페네주엘라, 리비아, 이란, 쿠웨이트등의 산유국에 있어서 유

전이 국유화되어 원유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에 메이저의 경영전략은 통합과 분산의 2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석유탐광개발·생산(상류부문)과 석유정제·판매·수송(하류부문)의 글로벌화가 한층 진전되고 있는 중에는 구미석유산업에 있어서 기업그룹의 통합화와 사업분산화의 쌍방의 기업전략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메이저만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및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경영전략의 동향을 포함해 생각하면 더욱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는 「준 메이저」라고도 호칭되고 있는 미국의 중견석유기업과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기업전략 사례를 조사하여 구미석유산업에 있어서 경영전략의 동향을 조사분석했다.

본고에 있어서 구미석유산업중에 「메이저」,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유형화는 구체적으로 아래에 나오는 19社를 편의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메이저 : R/D Shell

Exxon

Mobil

BP

Texaco

Chevron

미국 중견석유기업 : Amoco Corp.

ARCO (Atlantic Richfield Company)

Conoco Inc. (Du Pont)

Occidental Petroleum Corp (OXY)

Marathon Oil Company (USX)

Amerada Hess Corp.

Unocal Corp.

Phillips Petroleum Company

유럽주유석유기업 : Elf Aquitaine
 Total
 ENI S.p.A (Agip S.p.A)
 Statoil
 Petrofina S.A

제1장 구미석유산업의 전체상과 현상

1. 구미석유산업에 있어서 기업군의 분류

본고에서는, 실제로 다수의 구미석유기업군으로 구성된 구미석유산업에서 구미석유산업전체의 동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주요 구미석유기업 19사를 들어, 이것을 국제석유기업(메이저),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번의 조사대상 기업군에 있어서 각사별 내지는 그룹별로 조사분석하여 구미석유기업의 최근동향과 전략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3개 그룹(19社로 한정)은 다음의 기업군으로 구성된다. 즉, 메이저는 소위 국제석유기업으로, R/D Shell, Exxon, Mobil, BP, Texaco, Chevron의 6社를 가리키고,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은 메이저로 호칭되고 있는 대형 미국석유기업중, Amoco, ARCO, Conoco, Occidental, Marathon, Amerada Hess, Unocal, Phillips의 8社를 선택했다.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은 유럽 국적의 대규모 석유기업중 Elf Aquitaine, ENI, Total, Petrofina, Statoil의 5社를 총칭한 것이다.

우선 최초로 이번 조사대상의 구미석유기업 19社(메이저,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유럽의 주요석유기업)가 세계 전체의 석유시장중에서 접히는 세어를 살펴보자. <표-1>은 PIW(Petroleum Intelligence Weekly)가 매년 공표하고 있는 세계석유기업의 상위랭킹 리스트의 일부를 포함한 것이지만, 상위 10위까지를 보면 석유정제능력, 석유제품판매량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량에 있어서는 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구미석유기업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단, 원유생산량,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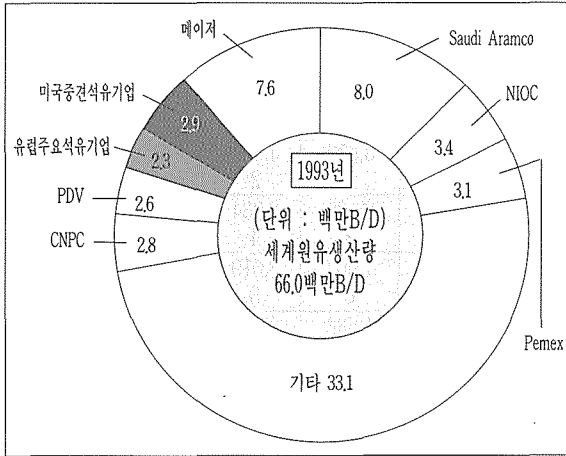
<표-1> 세계석유산업의 상위랭킹기업(1993년)

| 순위 | 석유제품판매량 | | 석유정제능력 | | 원유생산량 | | 천연가스생산량 | | 원유매장량 | | 천연가스매장량 | |
|----|--------------|-------|--------------|-------|--------------|-------|--------------|--------|--------------|---------|--------------|--------|
| | 기업명 | Mb/d | 기업명 | Mb/d | 기업명 | Mb/d | 기업명 | MMcm/d | 기업명 | MMB | 기업명 | Bcm |
| 1 | R/D Shell | 5,374 | R/D Shell | 4,197 | Saudi Aramco | 8,047 | Gazprom | 1,582 | Saudi Aramco | 261,203 | Gazprom | 24,080 |
| 2 | Exxon | 4,925 | Exxon | 3,972 | NIOC | 3,425 | R/D Shell | 205 | INOC | 100,000 | NIOC | 21,000 |
| 3 | BP | 3,019 | Mobil | 2,100 | Pemex | 3,140 | Exxon | 165 | KPC | 96,500 | QGPC | 6,703 |
| 4 | Mobil | 2,934 | PDV | 2,081 | CNPC | 2,829 | Sonatrach | 147 | NIOC | 92,860 | Saudi Aramco | 5,260 |
| 5 | Chevron | 2,594 | Chevron | 2,029 | PDV | 2,563 | Mobil | 131 | Adnoc | 64,452 | PDV | 3,908 |
| 6 | Texaco | 2,334 | BP | 1,907 | R/D Shell | 2,133 | Amoco | 118 | PDV | 64,450 | Adnoc | 3,803 |
| 7 | PDV | 2,073 | Saudi Aramco | 1,750 | KPC | 1,881 | PDV | 115 | Pemex | 50,766 | Sonatrach | 3,250 |
| 8 | Saudi Aramco | 1,800 | Texaco | 1,588 | Exxon | 1,667 | Saudi Aramco | 98 | Libya NOC | 22,800 | INOC | 3,100 |
| 9 | Pemex | 1,442 | Pemex | 1,500 | NNPC | 1,524 | NIOC | 74 | CNPC | 13,599 | NNPC | 2,230 |
| 10 | Amoco | 1,312 | Petrobras | 1,288 | Luk Oil | 1,374 | Chevron | 72 | NNPC | 12,595 | Pemex | 1,973 |

<자료> PIW, RANKING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1995 Edition을 근거로 작성.

<주> Mb/d=1,000b/d, MMcm/d=100만cm/d, MMB=100만배럴, Bcm=10억cm. 표시된 기업은 구미석유기업

<그림-1> 구미석유기업의 원유생산량 (NGL 포함) 규모



<자료> Annual Report, PIW,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를 근거로 작성
 <주> 미국 중견석유기업 8社 : Amerada Hess, Amoco, ARCO, Conoco, Marathon, Phillips, Unocal, Occidental
 유럽주요석유기업 5社 : Elf Aquitaine, Total, ENI, Statoil, Petrofina
 메이저 6社 : BP, Chevron, Exxon, Mobil, R/D Shell, Texa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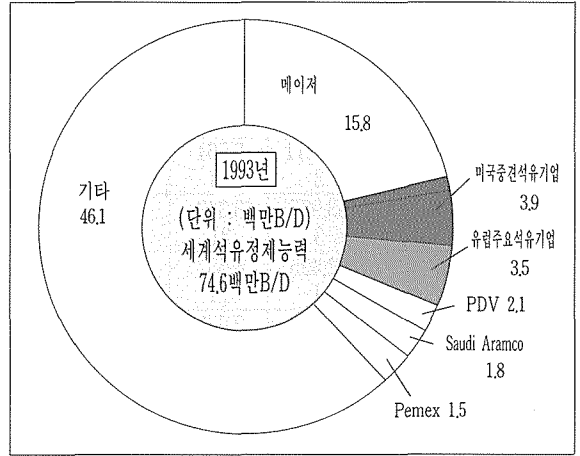
유매장량 및 천연가스매장량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페르시아만 산유국, 중남미, 아프리카, 중국, 러시아의 국영기업이 상위를 점하고 있다.

<그림-1>은 1993년에 구미석유기업의 원유생산량 (NGL 포함)의 규모 <그림-2>는 구미석유기업의 석유정제능력의 규모와 세계 전체에 있어서 구미석유기업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1993년의 구미석유기업의 원유생산량(NGL 포함)의 규모를 보면 메이저 6社가 763.7만 B/D (세계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은 11.6%),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8社가 290.5만 B/D(同 4.4), 유럽의 주요석유기업 5社가 234.7만 B/D (同 3.6%)이고, 세계전체의 원유생산량 (6,599만 B/D)에서 구미석유기업 19社가 점하는 비율은 약 2할에 상당한다.

메이저 6社의 원유생산량은 거의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생산량에 필적하고,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8社의 원유생산량은 CNPC(중국석유천연가스 총공사)의 원유생산량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구미

<그림-2> 구미석유기업의 석유정제능력 규모



<자료> Annual Report, PIW,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를 근거로 작성
 <주> 미국 중견석유기업 8社 : Amerada Hess, Amoco, ARCO, Conoco, Marathon, Phillips, Unocal, Occidental
 유럽주요석유기업 5社 : Elf Aquitaine, Total, ENI, Statoil, Petrofina
 메이저 6社 : BP, Chevron, Exxon, Mobil, R/D Shell, Texaco

석유기업의 석유정제능력의 규모를 보면 메이저가 1,579.3만 B/D(세계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은 21.2%),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이 391.3만 B/D(同 5.2%),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이 349.1만 B/D(同 4.7%)에 이르고, 세계 전체의 석유정제능력 (7,461.5만 B/D)에서 점하는 구미석유기업의 비율은 약 3할에 상당한다.

이와같이 이번 조사대상의 구미석유기업 19社의 기업활동은 그 세어규모도 그러하지만, 첨단기술 및 경영자원등의 면에서도 세계 석유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석유기업의 전략동향은 세계의 석유산업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는 1993년에 있어서 구미석유기업 19社의 판매고와 석유·천연가스의 매장량·생산량을 보여 주고 있다. 연간 판매고를 보면 상위 9위까지를 구미석유기업중에서 독점하고 있고, 19社가 상위 35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종업원수는 메이저가 47만명,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이 19만명,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이

〈표-2〉 구미석유산업의 판매고와 석유·천연가스의 매장량·생산량(1993년)

| 〈주1〉 | | 판매고 (MMUS\$) | 원유매장량 (MMB) | 가스매장량 (Bcm) | 원유생산량 (Mb/d) | 가스생산량 (MMcm/d) | 원유R/P (年) | 정제능력 (Mb/d) | 제품판매량 (Mb/d) | 종업원 (1,000人) | 총자산 (MMUS\$) |
|--------------------------------------|-------------------|-----------------|----------------|----------------|-----------------|-------------------|--------------|----------------|-----------------|-----------------|-----------------|
| 메 이 저 | R/D Shell 〈주2〉 | 125,814 1 | 9,124 12 | 1,429 13 | 2,133 6 | 205 2 | 12 | 4,197 1 | 5,374 1 | 127 2 | 99,380 2 |
| | Exxon | 111,211 2 | 6,564 13 | 1,197 15 | 1,667 8 | 165 3 | 11 | 3,972 2 | 4,925 2 | 95 7 | 84,145 3 |
| | Mobil | 63,975 3 | 3,343 21 | 501 18 | 838 16 | 131 5 | 11 | 2,100 3 | 2,934 4 | 64 11 | 42,187 6 |
| | BP | 52,425 4 | 6,537 14 | 290 25 | 1,242 12 | 32 26 | 14 | 1,907 6 | 3,019 3 | 98 6 | 23,410 15 |
| | Texaco | 34,071 7 | 2,685 25 | 170 34 | 728 17 | 56 13 | 10 | 1,588 8 | 2,334 6 | 38 21 | 26,626 11 |
| | Chevron | 33,014 8 | 4,185 17 | 267 26 | 950 15 | 72 10 | 12 | 2,029 5 | 2,594 5 | 49 16 | 34,736 8 |
| | 소 계 | 420,510 | 32,438 | 3,854 | 7,558 | 661 | 12 | 15,793 | 21,180 | 471 | 310,484 |
| 미 국 중 견 석 유 기 업 | Amoco | 28,617 9 | 2,223 30 | 500 19 | 678 20 | 118 6 | 9 | 1,007 13 | 1,312 10 | 47 18 | 28,486 10 |
| | ARCO | 19,183 13 | 2,465 27 | 227 29 | 684 19 | 35 24 | 10 | 522 33 | 707 23 | 27 25 | 23,894 13 |
| | Conoco | 15,771 18 | 1,694 34 | 121 40 | 434 29 | 36 21 | 11 | 579 26 | 876 18 | 21 30 | 10,899 20 |
| | Phillips | 12,545 25 | 1,037 36 | 172 33 | 362 32 | 38 20 | 8 | 355 40 | 614 28 | 22 29 | 10,868 21 |
| | Marathon | 10,035 28 | 842 40 | 110 41 | 156 45 | 27 31 | 15 | 579 26 | 726 22 | 23 27 | 10,806 22 |
| | Unocal | 8,344 31 | 764 42 | 188 31 | 246 37 | 44 17 | 9 | 296 45 | 345 41 | 15 34 | 9,254 28 |
| | Occidental | 8,116 32 | 558 46 | 60 50 | 216 38 | 18 36 | 7 | 0 72 | 0 68 | 24 26 | 17,123 17 |
| | Amerada Hess | 5,873 35 | 670 44 | 75 46 | 215 39 | 25 32 | 9 | 575 28 | 386 38 | 10 44 | 8,641 29 |
| 소 계 | 108,484 | 10,253 | 1,453 | 2,991 | 341 | 9 | 3,913 | 4,966 | 189 | 119,971 | |
| 유 럽 주 요 석 유 기 업 | Elf Aquitaine | 39,916 5 | 2,535 26 | 170 34 | 619 22 | 36 21 | 11 | 756 17 | 944 17 | 88 9 | 48,044 4 |
| | ENI | 34,760 6 | 3,463 20 | 448 20 | 536 24 | 55 14 | 18 | 1,019 12 | 1,121 14 | 124 3 | 101,877 1 |
| | Total | 24,112 11 | 2,844 22 | 189 30 | 430 30 | 28 30 | 18 | 910 14 | 1,293 11 | 51 14 | 23,879 14 |
| | Petrofina | 16,440 15 | 530 48 | 60 50 | 92 55 | 17 38 | 16 | 611 22 | 786 21 | 15 33 | 10,548 24 |
| | Statoil | 11,579 26 | 2,023 32 | 364 23 | 449 28 | 14 45 | 12 | 195 53 | 212 48 | 14 35 | 13,677 18 |
| | 소 계 | 110,367 | 10,865 | 1,171 | 2,034 | 133 | 15 | 2,880 | 4,356 | 277 | 187,477 |
| 총 계 | 639,361 | 53,556 | 6,478 | 12,583 | 1,135 | 12 | 22,586 | 30,502 | 937 | 617,932 | |

〈주 1〉 MMUS\$ = 100만US\$, MMB=100만배럴, Bcm=10억입방미터, Mb/d=1,000b/d, MMcm/d=100만cm/d을 표시한다.

〈주 2〉 하단의 숫자는 1993년의 PIW Ranking에 의한 순위를 나타냄

(자료) PIW, Special Supplement Issue, December 12, 1994을 근거로 작성

28만명으로, 구미석유기업전체로 총 94만명이다. (단, 다음의 <표-11>의 종업원수가 약간 다른 것은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원유R/P (가채년수, 원유확인 가채 매장량을 그 해의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당해년의 생산량으로 몇년간이나 유지가능한 가를 나타냄)을 보면 1993년의 세계 전체의 원유 R/P가 43.1년, 중동이 95.1년, 아프리카가 25.1년, 아시아·오세아니아가 17.6년인데 대하여, 메이저의 원유 R/P는 12년,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이 9년,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이 15년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총자산을 보면 구미석유기업중에는 이탈리아 국유기업 ENI가 1,019억 달러, R/D Shell이 994억 달러, Exxon이 841억 달러로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메이저 6社の 총자산은 3,105억달러,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8社の 총자산이 1,200억 달러, 유럽의 주요석유기업 5社の 총자산이 1,875억 달러로, 구미석유기업 19社の 총자산을 보면 6,179억 달러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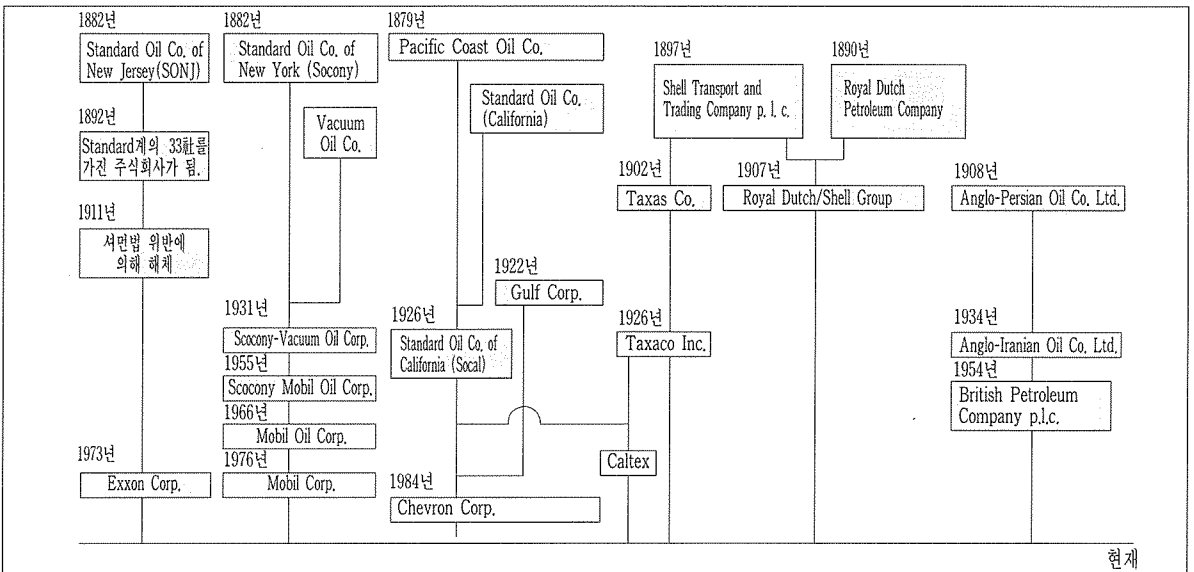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본고에서 든 구미석유기업은, 세계의 석유산업 전체의 동향을 살펴보는 데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미석유기업중에도 미국의 중견석유기업과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전략동향은 메이저의 그것에 비해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제1장에서는 구미석유기업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상에서 밝혔고, 제2장에서는 구미석유기업에 있어서 미국의 중견석유기업과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상대적인 지위의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2. 메이저·미국의 중견석유기업·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계보와 현황

<그림-3>은 국제석유기업(메이저)의 계보, <그림-4>는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의, <그림-5>는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계보이다.

<그림-3> 국제석유기업(메이저)의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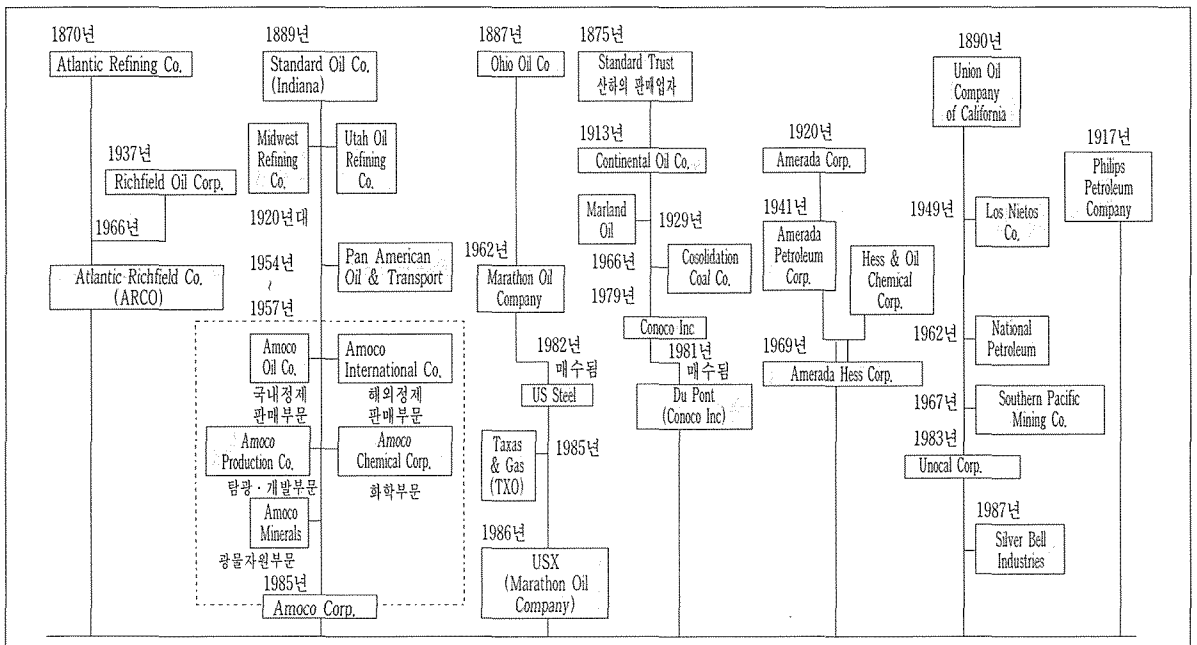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에 의해 작성

석유사업이 탄생한 19세기 후반 당초, 석유산업은 미국에 집중되어 록펠러의 Standard Oil Trust 산하에 통합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

1911년에 미국에 있어서 Standard Oil Trust는 셔먼법 위반으로 해체되었지만 이로 인해 지금 있는 메이저의 다수가 탄생했다. 즉 Standard Oil Company of New Jersey (SONJ)는 현재의 Exxon Corp., Standard Oil Company of New York (Socony)는 현재의 Mobil Corp., Standard Oil Company of California(Socal)는 현재의 Chevron Corp., Standard Oil Company of Indiana는 현재의 Amoco Corp.,와 연결되어 있고 Standard Oil Ohio는 현재의 BP(British Petroleum Company p.l.c)의 일부가 되어 있다. 일찌기 Exxon, Mobil, Socal, Gulf, Texaco, R/D Shell, BP가 세븐시스터즈(서로 질투심을 가지면서도 협조하는 일곱자매라는 의미에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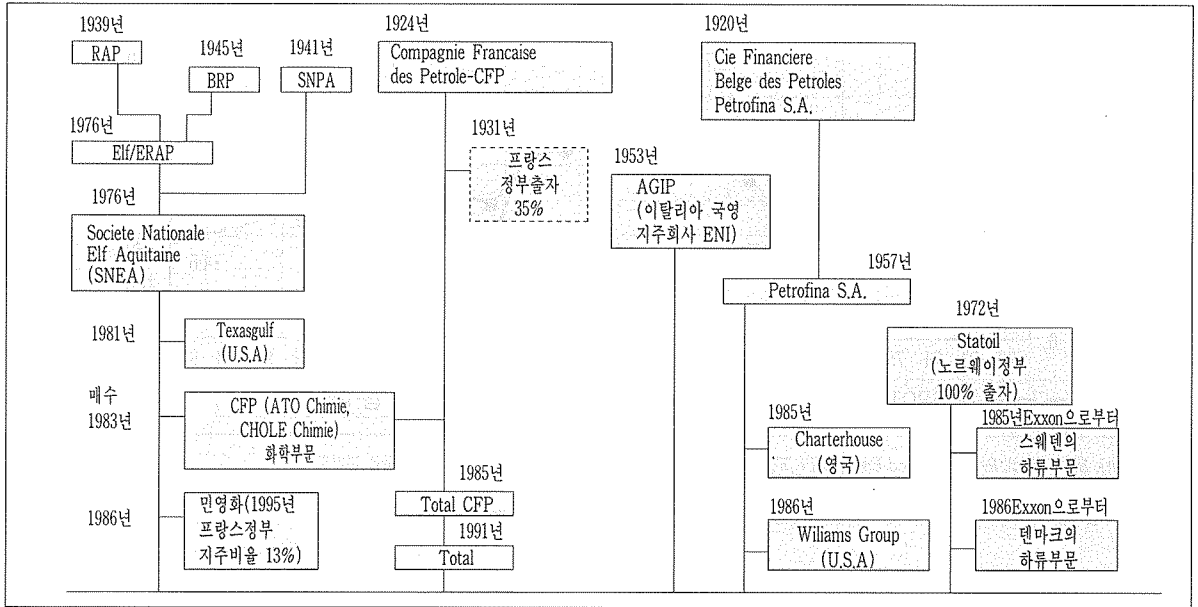
고 불리워지고 있다가 1984년에 Socal이 Gulf Corp를 매수하여 Chevron Corp된 현재는 6대 메이저가 되었다. 그외의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을 보면 <그림-4>, ARCO는 미국대서양 연안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Atlantic Refining Co.,(1870년 설립)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갖고 Richfield Oil Corp(1937년 설립)을 1966년에 매수하여 설립된 일관조업기업이다. Marathon Oil Company는 원래 1887년에 Ohio Oil Co로 설립된 독립계 석유기업이었지만 1982년에 미국 철강메카인 US Steel에 매수되었다. Conoco는 원래 Standard Trust 산하의 판매업자 이었지만 1913년에 Continental Oil Co가 되고, 1929년에 Marland Oil과 합병, 제2차 세계대전후는 이란·콘소시엄에 참가하는등 국제적인 일관조업회사로 성장한 후, 1981년에 미국 최대의 화학회사 Du Pont에 매수되었다. Amerada Hess는 1920년에 설립된 기업

<그림-4> 미국중견석유기업의 계보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에 의거해 작성

〈그림-5〉 유럽주요석유기업의 계보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에 의거해 작성

으로, 탐광·개발부문에서는 멕시코만, 록키산맥지역, 북해, 캐나다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Unocal은 1890년에 Union Oil Company of California로 설립된 기업으로 지역발전사업은 세계 최대규모이고, Phillips Petroleum Company는 1917년에 Phillips 일족에 의해 설립된 유력중견석유기업이다. 〈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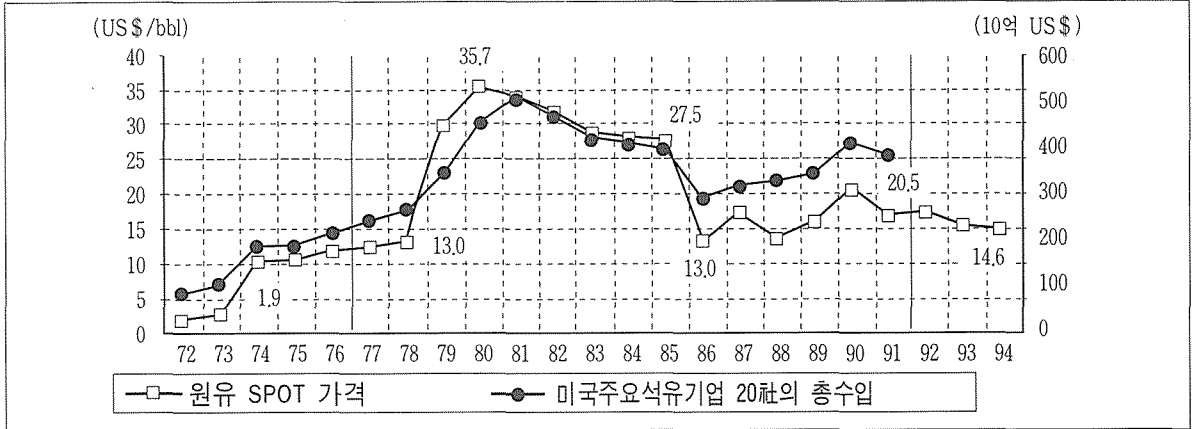
한편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을 보면 〈그림-5〉, Elf Aquitaine은 1966년에 RAP(1939년 설립)과 BRP(1945년 설립)가 통합되어 국영기업 Elf/ERAP가 되었지만 1986년 이후 민영화가 진척되어 1995년 1월의 프랑스정부 지주비율은 13%가 되었다. Total은 1924년에 민간은행, 석유정제회사등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어 1929년에 프랑스정부의 직접보유지분이 25%, 31년에는 35%까지 인상되었다가 최근 정부가 Total주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직접 보유지분은 약 5%가 되었다. ENI는 1953년 Agip를

모체로 하여 이탈리아 정부 전액출자의 국영지주기업으로 설립되었지만 현재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다. Petrofina는 1920년에 설립되었다. Statoil은 비교적 역사가 짧고 1972년에 노르웨이 정부의 100%출자의 국영석유기업으로 설립되었다. 〈그림-5〉

3. 구미석유산업전체의 수익·투자동향

구미석유기업의 수익은 원유가격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림-6〉은 원유 스파트 가격과 미국의 주요석유기업 20社の의 총수입의 관계를 본 것이다. 미국석유기업의 총수입이 원유가격변동과 같이 변화하고 있고, 1986년의 대폭하락 이후에 완만한 원유가격의 추이에 따라, 미국석유기업의 수익의 신장률도 소폭에 머물러 있다. 페르시아만 위기로 1990년에 20.5\$/bbl까지 상승한 원유가격은 1994년에 14.6\$/bbl까지 내려가고 있다.

〈그림-6〉 원유 SPOT가격과 미국석유기업의 총수입



〈자료〉 Platt's,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API "Financial Trends of Leading U.S. Oil Companies 1968-1991" 등을 근거로 작성
 〈주〉 1972~1986년 11월은 아라비아라이트, 1986년 12월 이후는 두바이 SPOT명목가격의 추이
 미국주요석유기업 20社の의 총수입은, API "Financial Trends of Leading U.S. Oil Companies 1968~1991"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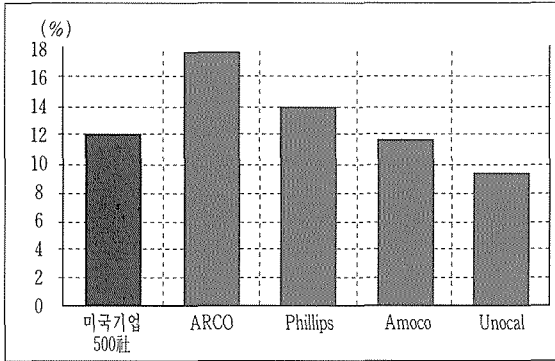
〈표-3〉 구미석유기업의 수익 퍼포먼스의 추이

(단위 : %)

| | | 자본이익률 | | 총자본이익률 | | 자기자본이익률 | | 상류자산수익률 | | 하류자산수익률 | |
|----------|---------------|-------|-------|--------|-------|---------|-------|---------|-------|---------|-------|
| | | 84~88 | 89~93 | 84~88 | 89~93 | 84~88 | 89~93 | 84~88 | 89~93 | 84~88 | 89~93 |
| 메이저 | R/D Shell | (1)29 | 20 | 13 | 11 | 14 | 11 | 6 | 9 | 14 | 12 |
| | Exxon | 26 | 13 | 15 | 12 | 17 | 15 | 14 | 10 | 10 | 11 |
| | Mobil | 17 | 18 | 9 | 10 | 7 | 10 | 9 | 11 | 10 | 7 |
| | BP | 29 | 12 | 13 | 8 | 15 | 8 | 21 | 9 | 25 | 10 |
| | Texaco | 16 | 14 | 3 | 12 | 4 | 15 | 9 | 11 | 9 | 16 |
| | Chevron | 13 | 20 | 8 | 8 | 7 | 9 | 9 | 9 | 9 | 5 |
| 미국중견석유기업 | Amoco | 14 | 13 | 13 | 9 | 14 | 10 | 9 | 8 | 9 | 11 |
| | ARCO | 21 | 12 | 12 | 14 | 12 | 17 | n/a | n/a | n/a | n/a |
| | Conoco | 17 | 16 | 12 | 5 | 12 | 3 | n/a | 5 | n/a | 8 |
| | Occidental | 10 | n/a | 12 | n/a | 12 | n/a | n/a | n/a | n/a | n/a |
| | Marathon | (2) 5 | -2 | 7 | 6 | 2 | 3 | 13 | 4 | 11 | 27 |
| | Amerada Hess | 5 | 11 | 5 | 6 | 1 | 6 | n/a | n/a | n/a | n/a |
| | Unocal | 9 | 13 | 11 | 9 | 13 | 9 | 11 | 12 | 7 | 8 |
| | Phillips | 23 | 13 | 13 | 12 | 15 | 13 | n/a | 8 | n/a | 4 |
| 유럽주요석유기업 | Elf Aquitaine | 41 | 24 | 12 | 9 | 11 | 9 | 13 | 14 | 8 | 22 |
| | ENI | n/a | n/a | 8 | n/a | 6 | n/a | n/a | n/a | n/a | n/a |
| | Total | 38 | n/a | 6 | 10 | 5 | 10 | n/a | 17 | n/a | n/a |
| | Petrofina | 46 | 1 | 15 | 11 | 20 | 12 | n/a | n/a | n/a | n/a |
| | Statoil | n/a | n/a | 18 | 14 | 15 | 22 | n/a | n/a | n/a | n/a |

〈주〉 (1) Royal Dutch의 수익, (2) Marathon/Texas Oil & Gas. n/a=not available
 〈자료〉 Petroleum Economist, 1990년 2월호, 및 각회사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

<그림-7> 미국중견석유기업의 주주자본이익률의 수준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 등을 근거로 작성
 <주> 미국 500社는 1982~92년 평균, Amoco, Phillips, Unocal은 1985~94년 평균, ARCO는 1986~94년 평균의 각각의 주주자본이익률(ROE)을 나타냄

다음으로 구미석유기업의 장기적인 수익동향의 추이를 살펴보자. <표-3>은 1980년대 중반이후의 10년간에 있어서 구석유기업의 수익 퍼포먼스의 추이를 나타낸다. 자본이익률(ROE)을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ROE가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메이저, 유럽의 주요석유기업, 일부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은 고수준의 ROE를 유지하고 있다.

이 10년간에 ROE가 크게 내려간 곳은 Exxon, BP, ARCO, Phillips이지만, 미국기업 500社의 장기적인 ROE가 12% 정도인 것으로 미루어 보면, 대체로 구미석유기업이 이것을 상회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중, Amoco, ARCO, Phillips, Unocal의 장기적인 ROE를 미국 500社 평균과 비교해도 거의 우위에 있어 수익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7>

최근의 구미석유기업의 수익동향을 보면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은 1994년의 경비삭감과 차입금 변제에 의해 금리부담경감의 효과가 현저해, Elf, Aquitaine, Petrofina, Statoil, Total이 영업이익베이스로 이익이 증가했다. 북해 브렌트의 평균가격이 1994년에는 전년비 1.20달러/bbl 하락으로 인해 상류부문에서 이익

<표-4> 구·미 석유기업의 세후순이익의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
| Amerada Hess | 483 | 84 | 8 | -268 | N.A |
| Amoco | 1,913 | 1,484 | -74 | 1,820 | 1,789 |
| ARCO | 2,011 | 709 | 801 | 269 | 919 |
| Conoco | 1,078 | 814 | 337 | 555 | 680 |
| Marathon | 1,138 | -71 | -222 | -35 | N.A |
| Phillips | 779 | 258 | 180 | 243 | 484 |
| Unocal | 704 | 73 | 220 | 213 | -153 |
| 미국중견석유기업 | 8,106 | 3,351 | 1,250 | 2,797 | N.A |
| Elf Aquitaine | 1,959 | 1,743 | 1,169 | 189 | -1,010 |
| Total | 749 | 1,034 | 539 | 524 | 633 |
| ENI | 1,703 | 815 | -772 | 143 | N.A |
| Statoil | 696 | 658 | 371 | 478 | 2,057 |
| Petrofina | 652 | 479 | 147 | 207 | N.A |
| 유럽주요석유기업 | 5,759 | 4,729 | 1,454 | 1,541 | N.A |
| BP | 3,022 | 735 | -811 | 923 | 2,413 |
| Chevron | 2,157 | 1,293 | 1,569 | 1,265 | 1,693 |
| Exxon | 5,010 | 5,600 | 4,770 | 5,300 | 5,100 |
| Mobil | 1,929 | 1,920 | 862 | 2,084 | 1,079 |
| Royal Dutch/Shell | 6,533 | 4,288 | 5,369 | 4,497 | 6,267 |
| Texaco | 1,450 | 1,294 | 712 | 1,068 | 979 |
| 메이저 | 20,101 | 15,130 | 12,471 | 15,137 | 17,531 |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를 근거로 작성
 <주> N.A. = not available.

이 증가했다. 하류부문에는 석유정제마진(1.80달러/bbl)이 전년비 30% 감소함에 따라 이익이 감소하였지만, 화학부문에 있어서의 이익 증가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Elf Aquitaine가 1994년에 처음으로 54억 프랑(10억달러)의 적자를 계상했지만, 이것은 미국회계 기준의 변경에 나란히 특별상각했던 것으로 특수요인이다. Total은 원유가격 하락분을 생산성향상에 의해 서로 절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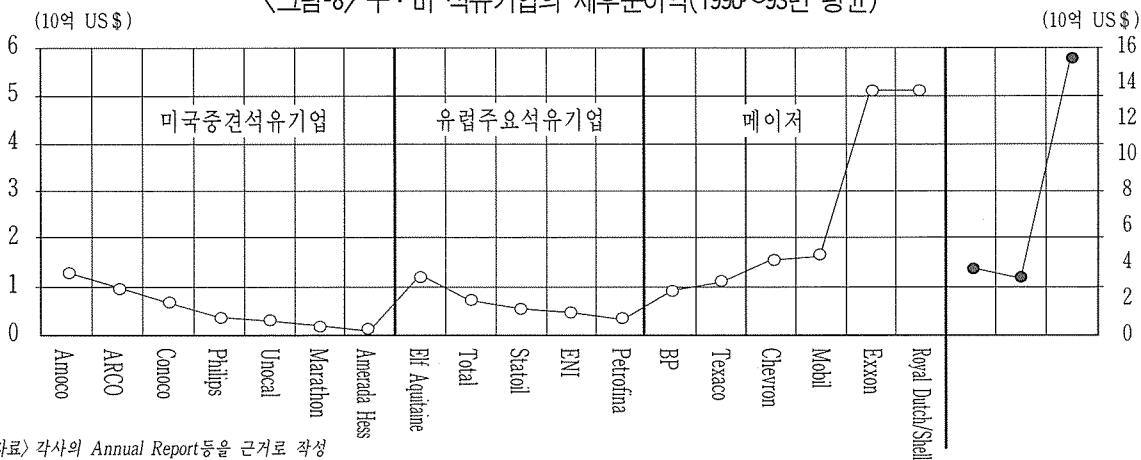
Statoil은 원유생산에 의해 이익은 평년과 비슷하였지만, 가스부문에 의한 이익 증가에 크게 힘입어 상류부문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Petrofina의 1994년의 영업이익은 1억 200만 달러로 전년비 46% 증가했지만 구미에 있어서 석유화학사업과 안트워트 정

유공장(2차 설비)이 이익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PIW, 1995년 3월 6일) 미국의 증견석유기업도 1993~94년에 걸쳐 기업수익이 개선되고 있다.

메이저 6社도 1994년은 화학부문에서의 이익이 급증하여 하류부문의 부진을 커버하여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메이저 6社의 세후순이익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 들어와서도 석유정제·석유제품판매부문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어 원유가격상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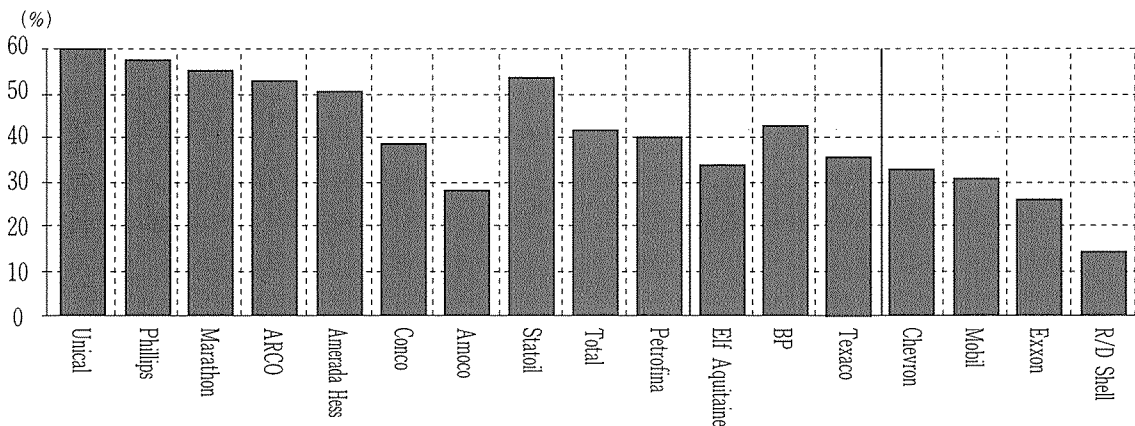
주요 요인으로 상류부문의 수익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함께 석유화학사업의 이익도 더이상 내려가지 않고 앓고 있다. 그런데 순이익의 규모를 기업별로 비교해보면, 구미석유산업중에는 물론 메이저의 이익이 최대여서, 메이저 6社에서 연간 160억 달러 전후의 세후순이익(1990~93년 평균)을 계상(計上)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증견석유기업,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각각의 순이익의 약 4배에 상당한다. <그림-8>은 1990~93년 평균의 세후순이익을 기업별 및 그룹

〈그림-8〉 구·미 석유기업의 세후순이익(1990~9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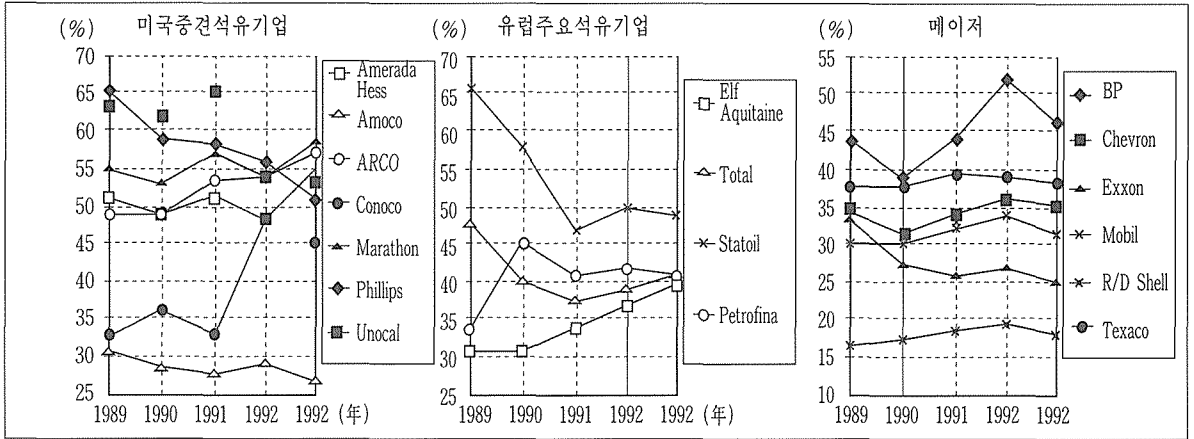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 등을 근거로 작성

〈그림-9〉 구·미 석유기업의 사용총자본부채비율(1989~9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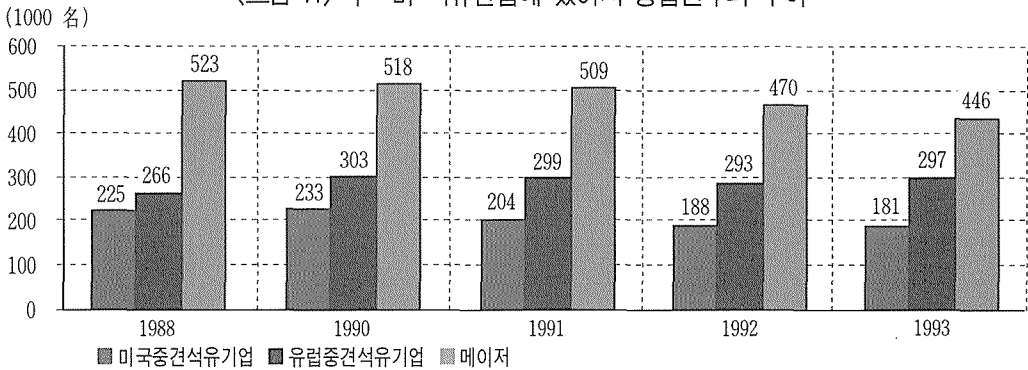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 등을 근거로 작성

〈그림-10〉 구·미 석유기업별 사용총자본부채비율의 추이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등을 근거로 작성

〈그림-11〉 구·미 석유산업에 있어서 종업원수의 추이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를 근거로 작성

〈주〉 미국 중견석유기업 8社 : Amerada Hess, Amoco, ARCO, Conoco, Marathon, Phillips, Unocal, Occidental

유럽주요석유기업 5社 : Elf Aquitaine, Total, ENI, Statoil, Petrofina
메이저 6社 : BP, Chevron, Exxon, Mobil, R/D Shell, Texaco

별로 플롯한 것이다. 기업별 순이익의 크기로만 보면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에서 ARCO, Amoco, Conoco와, 유럽의 주요 석유기업에서 Elf Aquitaine, Total은 메이저의 BP, Texaco의 순이익에 버금가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구미석유기업의 사용 총 자본 부채 비율을 보면(그림-9), 미국의 중견석유기업과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중 Unocal, Phillips, Marathon, AR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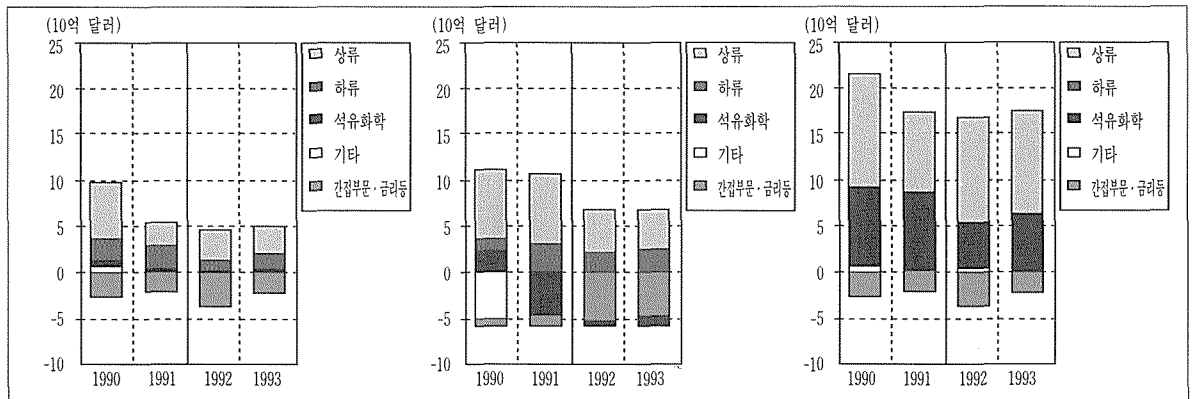
Amerada Hess, Statoil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미국기업 500社평균의 부채비율은 29%(1989~92년 평균)여서, Amoco이외의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대부분의 유럽주요기업, 메이저로는 BP가 부채비율에 있어서 미국기업 500社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0〉은 1989~93년에 있어서 구미석유기업별 부채 비율의 추이를 본 것이다. 미국 석유기업으로는 Amoco(20%대까지 부채비율을 내렸다.)이외의 기업

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먼저 지적한 대로이다. 단지 최근에는 Conoco이외의 기업이 부채비율을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전과 다름없이 50% 전후의 부채비율을 나타내어 부채삭감이 한층 더 요구된다.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에 있어서는 Statoil이 부채비율을 1989년의 66%에서 1993년에 49%까지 인하했지만 Elf Aquitaine, Total, Petrofina의 부채비율은 최근 상승하고 있어, 특히 Elf Aquitaine 부채비율은 1989년의 31%에서 1993년에는 40%까지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및 메이저가 부채 삭감을 우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부채는 Statoil을 제외하고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용삭감실시의 진척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종업원수의 추이로도 반영되고 있다. <그림-11> 즉, 1989년부터 1993년의 5년간의 종업원수가 메이저에서 7만 7000명 감소,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에서 4만 4000명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에서는 3만 1000명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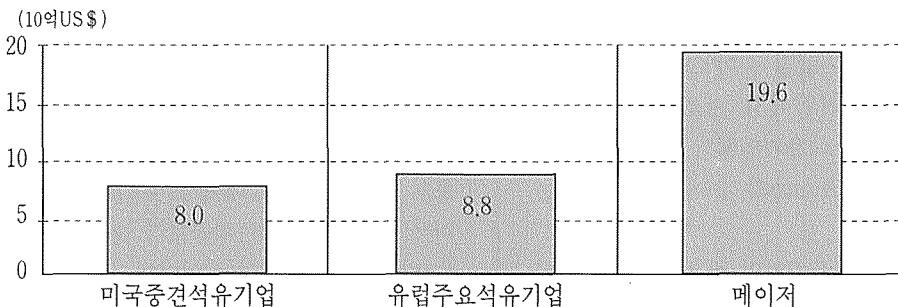
<그림-12> 구·미 석유산업의 부문별 순이익 추이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등을 근거로 작성
 <주> 미국 중견석유기업 7社 : Amerada Hess, Amoco, ARCO, Conoco, Marathon, Phillips, Unocal

유럽주요석유기업 5社 : Elf Aquitaine, Total, ENI, Statoil, Petrofina
 메이저 6社 : BP, Chevron, Exxon, Mobil, R/D Shell, Texaco

<그림-13> 구·미 석유산업에 있어서 상류부문의 연간자본지출액(1990~92년 평균)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등을 근거로 작성
 <주> 미국 중견석유기업 7社 : Amerada Hess, Amoco, ARCO, Conoco, Marathon, Phillips, Unocal

유럽주요석유기업 5社 : Elf Aquitaine, Total, ENI, Statoil, Petrofina
 메이저 6社 : BP, Chevron, Exxon, Mobil, R/D Shell, Texaco

4. 구미석유산업전체의 상류부문의 수익·조업·투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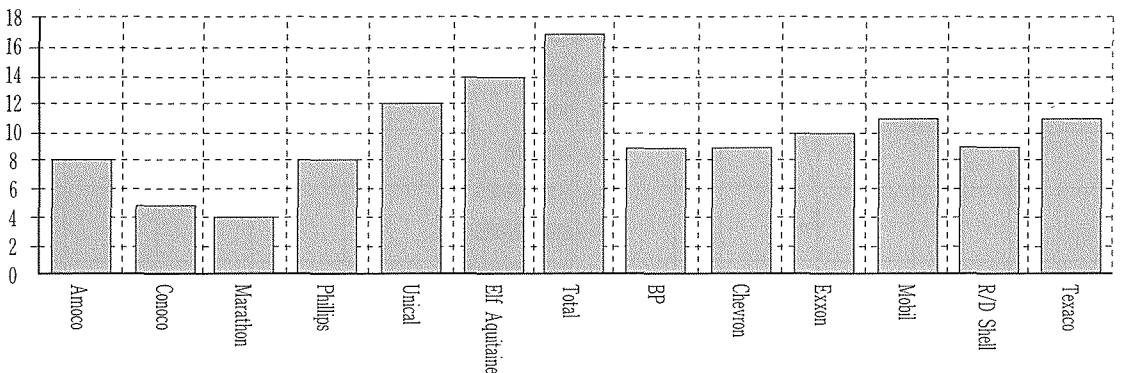
원유가격이 낮은 것에 영향을 받아 상류부문의 순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12>는 구미석유산업의 부문별 순이익의 추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미국의 중견석유기업 7社 合計의 상류부문 순이익은 1990년의 58억 달러에서 93년에는 26억 달러로 반감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석유기업 5社 合計의 상류부문 순이익도 1990년의 82억 달러에서 93년에는 46억 달러로 급감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메이저 6社의 상류부문 순이익은 1990년의 124억 달러에서 '93년에는 109억 달러로 동기간의 순이익은 약 1할 정도의 감소폭에 머물고 있다.

<그림-13>은 구미석유산업에 의한 석유·가스의 상류부문자본지출액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상류부문의 연간자본지출액(1990~92년평균)의 규모는 메이저6社가 196억 달러, 유럽의 주요석유기업 5社가 88억 달러, 미국중견기업 7社가 80억 달러, 이것을 합계한 구미석유산업에 의한 연간지출액은 364억 달러(1990~92년 평균)이다.

이와같이 상류부문순이익의 추이와 상류부문자본지출액 및 앞에 나온 <표-3>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메이저의 상류부문에 있어서의 수익성은 미국의 중견석유기업과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그림-14>는 1989~93년에 걸쳐 구미석유기업의 상류부문에 있어서 수익율의 수준을 기업별로 비교한 것이다. 메이저의 수익율은 10%전후로 안정되어 있지만 미국의 중견석유기업과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은 기업에 따라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동기간의 수익율은 Total이 17%, Elf Aquitaine이 14%, Unocal이 12%로 높고, Conoco가 15%, Marathon이 4%로 낮다. 구미석유기업에 의한 원유·천연가스 생산에 있어서 양적으로 보아 주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의 생산량을 지역별로 본 것이 <그림-15>와 <그림-16>이다. 아메리카지역(북미·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극동으로 나누어 볼 경우, 생산량이 많은 주요기업의 원유생산량을 지역별로 보면, 아메리카지역(415만B/D), 유럽(270만B/D), 아프리카(177만B/D), 중동/극동(155만B/D)의 순으로 많고, 천연가스에 있어서도 이와 같다.

탐광개발의 투자대상지역이 바뀌고 있다. 솔로몬·블라즈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의 석유·가스기업 316

<그림-14> 구·미 석유기업의 상류부문자산 수익율(1989~93년 평균)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 등을 근거로 작성

(주) 상류부문자산수익율은 상류부문의 조업이익을 상류부문 순자산 (Tangible 과 Intangible)으로 나눈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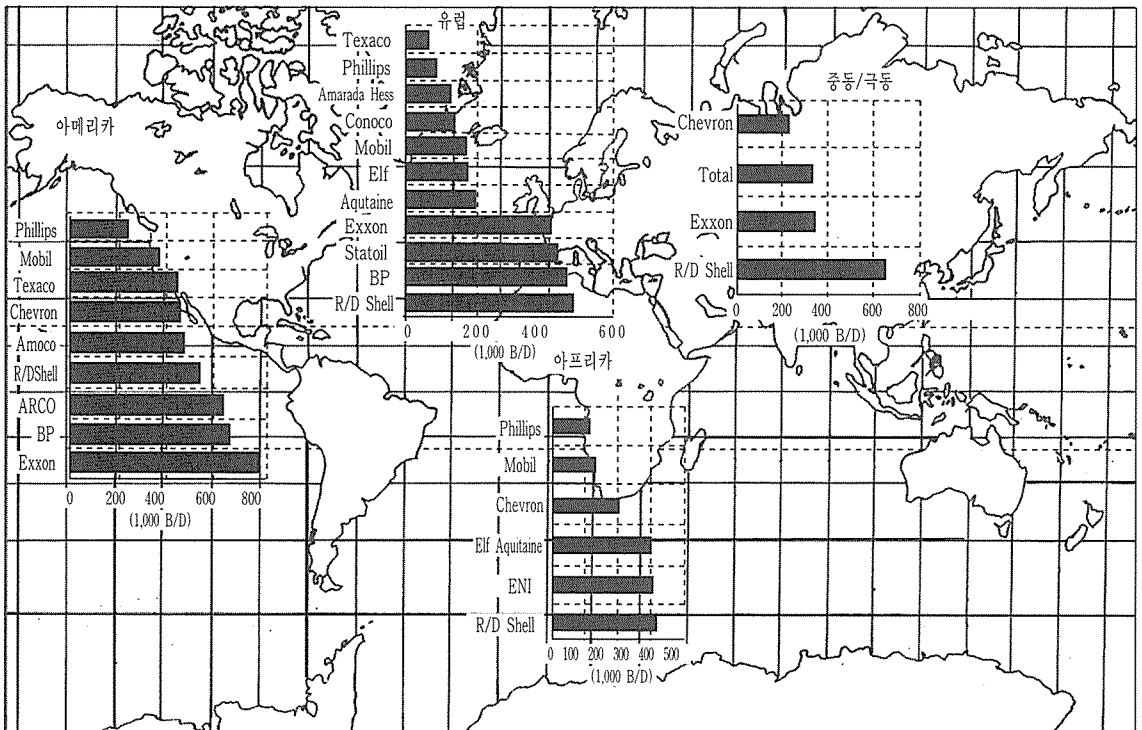
사가 탐광개발 투자의 대상지역으로서 관심이 높은 지역은 극동·대평양지역, 중남미, 구소련의 순이라고 한다(PIW, 1995년 1월 9일). 이조사에 의하면, 1995년에 WTI가 21달러가 되면 50%이상의 기업이 탐광개발지출을 증가시키겠다고 대답하고 있고, 15달러 정도의 낮은 가격이 계속된다면 50%이상의 기업이 지출삭감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미국석유기업이 탐광개발의 투자계획의 대상지역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중남미(베네수엘라 및 아르헨티나등 외자도입정책의 확대기대)와 아시아(중국, 베트남)가 최고로 많다.

또한 이 솔로몬·블라즈의 미국석유·가스기업 286社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1995년의 탐광

개발 투자계획은 전년비 8.4% 증가한 589억 달러이고, 미국이외로의 투자계획은 14.3% 증가했다. (Energy Daily, 1995년 7월 12일)

1995년의 투자계획에 관해서는 리만·브라즈조사(대형석유기업 22社대상)에 의해서도 전년비의 12% 증가한 것이 밝혀졌다. 이와같이 원유가 저가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탐광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선을 받아 석유·가스의 발견코스트가 저하하고 있는 것과 예멘, 콜롬비아, 베트남, 미얀마등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석유·가스자원으로서의 액세스 개선이 영향을 주고 있다. FSU(구소련)각국에 있어서 투자범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면 탐광개발투자는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볼 수 있

〈그림-15〉 구·미 석유기업의 원유생산량(NGL 포함, 지역별기업별, 1993년)



〈자료〉 PIW, Ranking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1995 Edition을 근거로 작성.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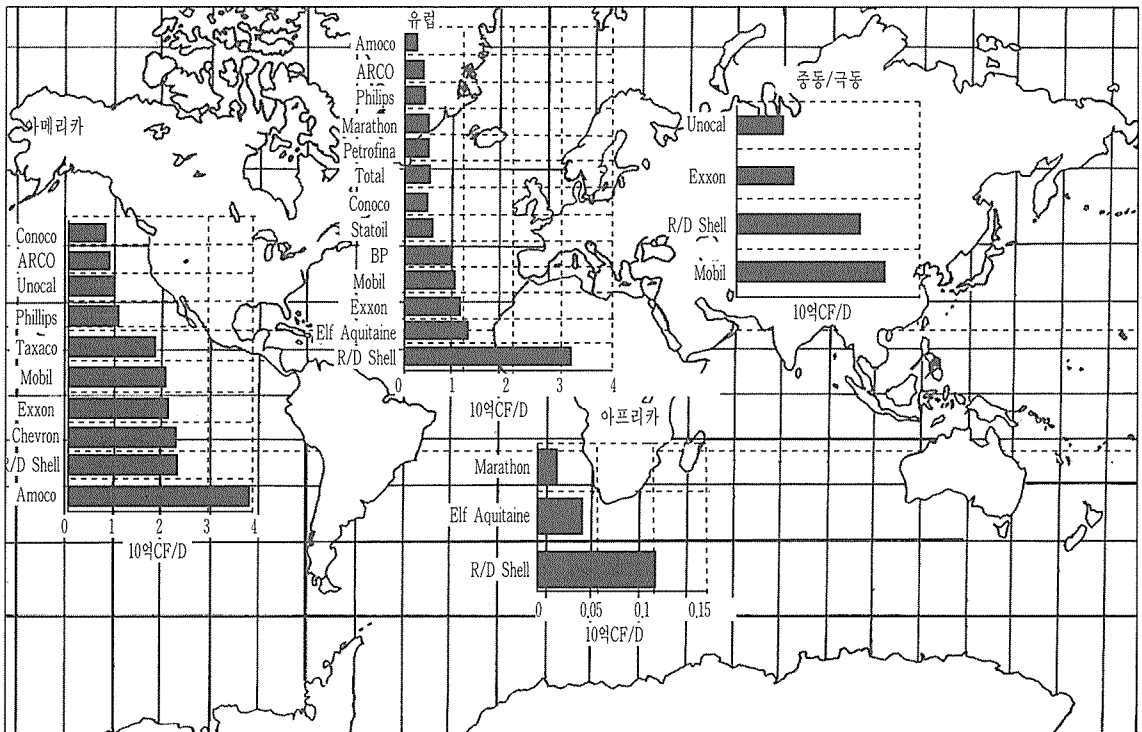
메이저의 석유·가스개발동향을 보면 1990년 이래 냉전종결로 보조 참여가 가능하게 된 FSU 및 아프리카 등의 국경지역으로의 개발투자를 적극적으로 행하여 왔지만, 요즘 몇년은 석유소비지역에 가까운 북해 및 멕시코만에 대한 탐광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미국에 있는 기존의 소규모유전의 매각등에 의해 원유·가스 생산량은 감소기미를 보이지만 1993년경부터 R/D Shell을 시작으로 미국 멕시코만의 굴착 투자가 활성화하고 있다.

<그림-17>은 1993년 시점에 있어서 구미석유산업의 원유(NGL포함)매장량을 본 것이지만, 구미석유산업 전체의 원유매장량은 541억 bbl(세계 전체의 확인

가채매장량은 1조 90억 bbl)이고, 이중 메이저가 324억 bbl, 미국중견석유기업이 103억 bbl, 유럽주요석유기업이 114억 bbl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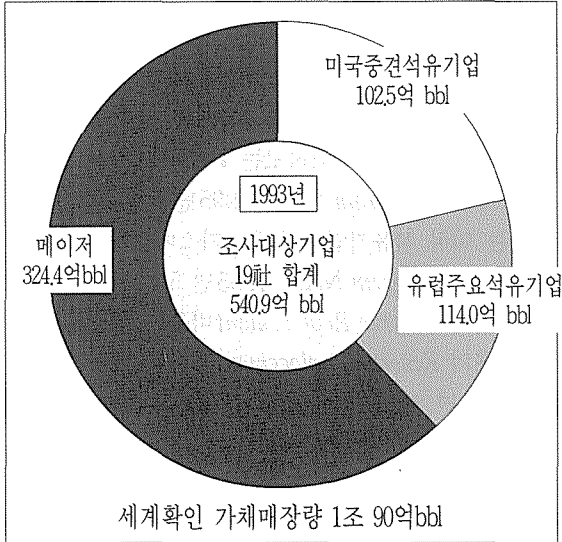
1993년의 Reserve Replacement 비율은 세계 전체로 128%(자산 매수를 제외하고는 93%), 미국은 100%(자산매수를 제외하고는 76%)에 그치고 있지만(Platt's Oilgram News, 1995년 5월 11일)1994년에는 미국 석유기업의 석유·가스매장량이 증대했다.(Platt's Oilgram News, 1995년 5월 16일) 단, 미국 국회의 Reserve Replacement비율은 상승하고, 미국 국내의 Reserve Replacement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1994년 미국 국회의 Reserve Replacement는 Phillips가 315%, Amoco가 160%, Unocal이 180%,

<그림-16> 구·미 석유기업의 천연가스생산량(지역별기업별, 1993)



<자료> PIW, Ranking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1995 Edition을 근거로 작성.

<그림-17> 구·미 석유산업의 원유(NGL 포함)매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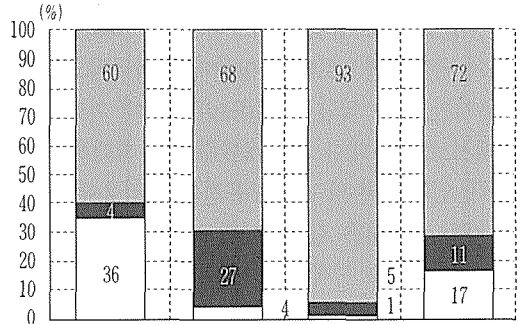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 PIW를 근거로 작성
 <주> 미국 중견석유기업 8社 : Amerada Hess, Amoco, ARCO, Conoco, Marathon, Phillips, Unocal, Occidental
 유럽주요석유기업 5社 : Elf Aquitaine, Total, ENI, Statoil, Petrofina
 메이저 6社 : BP, Chevron, Exxon, Mobil, R/D Shell, Texaco

Chevron이 150%, Mobil이 150%, Texaco가 140%로 신규굴착에 의해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의 증가가 추진되었다.

1994년에 천연가스매장량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Amoco였고, 트리니다드, 콜롬비아, 이집트, 북해로의 새로운 광상에 더하여 람파엘 프로젝트 7000만 BOE(Barrel Oil Equivalent)가 크게 기여했다. ARCO는 트리니다드 등에서 3,300만 BOE 증가, Conoco는 북해를 주체로 9,800만 BOE의 증가, Phillips는 노르웨이의 에코휘스크의 매장량의 증가에 의해 8,900만 BOE 증가했다. 구미석유기업중에 가스R/P가 석유 R/P를 상회한 것은 ARCO, Exxon, R/D Shell, Total, BP등이고, 국제적으로 가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후 10년간에 석유를 큰 폭으로 증산할 계획을 공표하고 있는 것은 BP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가스를 수익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림-18> 구·미 석유산업의 지역별석유제품 판매량의 구성(1993년)



□ 미국중견석유기업 ■ 유럽석유기업 ▨ 메이저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 등을 근거로 작성
 <주1> 이 그림은 본고에 있어서 조사대상기업 19社의 석유제품판매량 합계를 100으로 미국중견석유기업, 유럽주요석유기업, 메이저 각각의 지역별 판매량의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주2> 미국 중견석유기업 7社 : Amerada Hess, Amoco, ARCO, Conoco, Marathon, Phillips, Unocal
 유럽주요석유기업 5社 : Elf Aquitaine, Total, ENI, Statoil, Petrofina
 메이저 6社 : BP, Chevron, Exxon, Mobil, R/D Shell, Texa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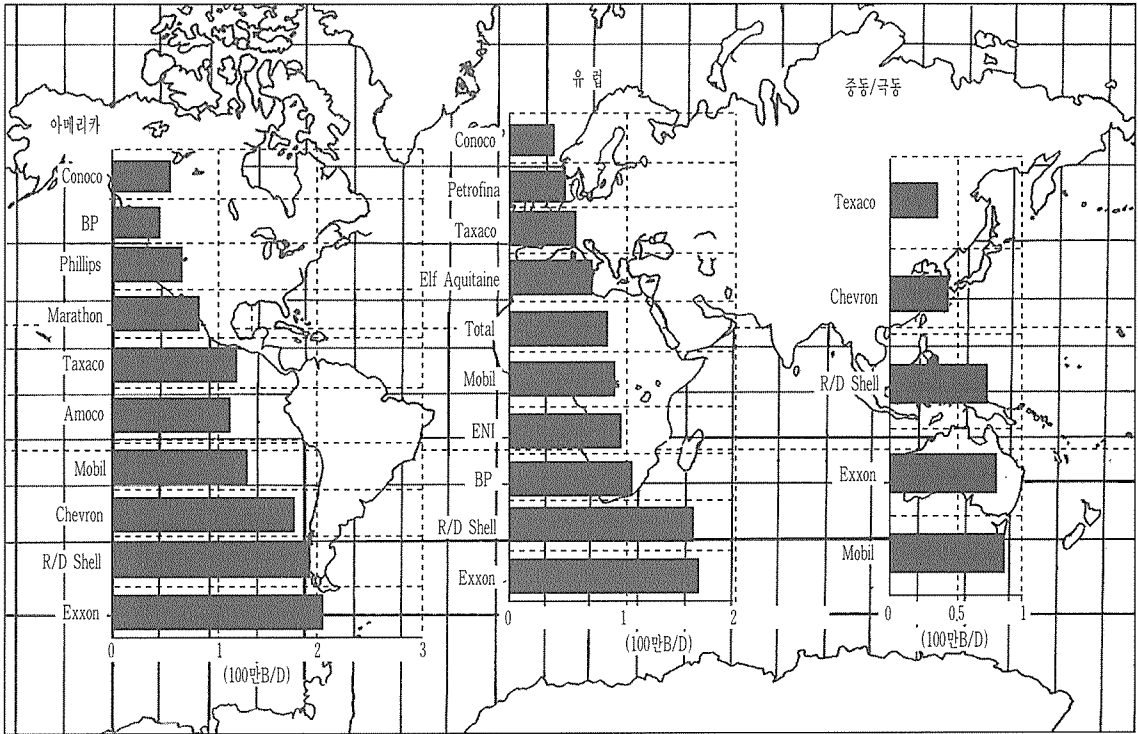
ARCO는 미국 국외의 확인매장량의 73%, 미국국외의 미개발광상의 82%를 가스가 점하고 있고, 1997년의 가스생산은 1993년 수준에 비해 65%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5. 구미석유산업전체의 하류부문·그의 부문의 수익·조업·투자·동향

<그림-18>은 구미석유산업의 지역별 석유제품판매량의 구성(1993년)을 본 것이다. 전세계에 있어서 석유제품판매세어는 메이저가 72%,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이 17%,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이 11%이다. 북미에는 메이저의 석유제품 판매세어가 60%,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의 세어가 36%,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세어가 4%로 되어 있다. 또한 메이저의 석유제품 판매세어는 유럽에서 68%, 그의 지역에서 93%,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의 세어는 유럽에서 27%, 그의 지역에서는 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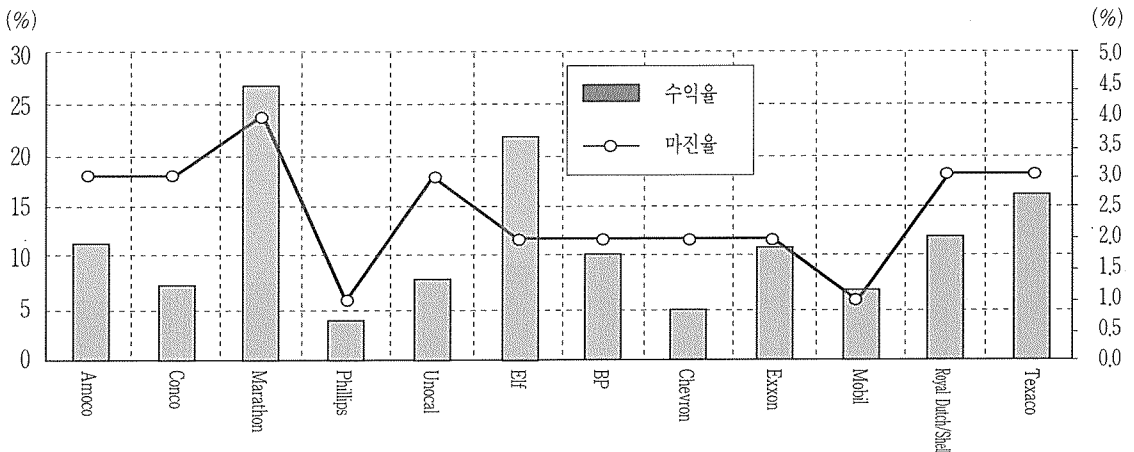
<그림-19>은 구미석유기업의 석유제품판매량에

〈그림-19〉 구·미 석유기업의 석유제품판매량(지역별기업별, 1993년)



〈자료〉 PIW, Ranking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1995 Edition을 근거로 작성.

〈그림-20〉 구·미 석유기업의 하류부문자산수익율(1989~93년 평균)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 등을 근거로 작성

〈주〉 하류부문자산수익율은 하류부문의 조업이익을 하류부문의 순자산(Tangible과 Intangible)로 나눈것, 마진율은 하류부문의 조업이익을 석유제품 판매액으로 나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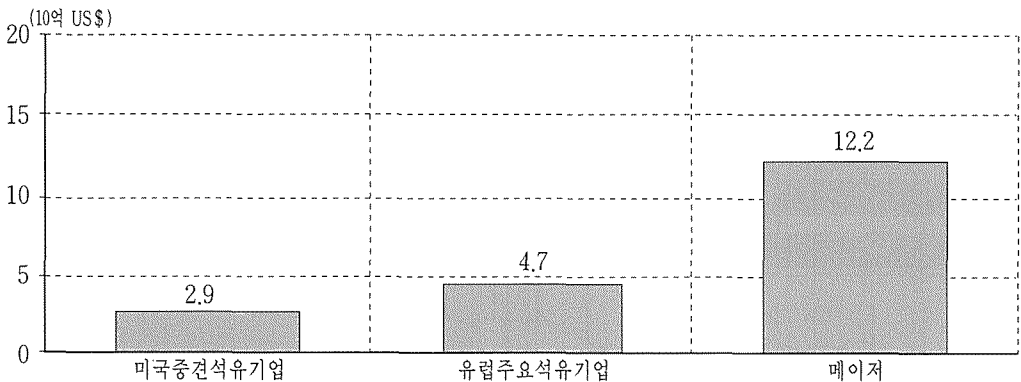
있어서 아메리카지역 유럽, 중동/극동에 나누어 주요 기업별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20>는 구미석유산업의 하류부문자산수익율의 수준(1989~93년평균)을 기업별로 본 것이다. 하류부문에 있어서 수익성을 보면 *Marathon, Elf Aquitaine, Texaco*를 제외하고 하류부문 자산 수익률은 15%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하류부문의 조업이익을 석유제품판매액으로 나눈 마진율을 봐도 대부분

의 기업이 2% 전후이다.

1994년 전반에 자동차 연료의 소매마진은 1990년 이후로 대폭적으로 상승했지만, 유럽주요기업에 있어 최대의 문제는, 유럽의 휘발유판매시장에 있어서 하이퍼마켓의 세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휘발유판매시장에 있어서 하이퍼마켓의 세어는 1995년에 54%에 달하고 있다. 유럽시장의 리더인 *R/D Shell* 및 *Exxon*은 직접 하이퍼마켓

<그림-21> 구·미 석유산업에 있어서 하류부문의 연간자본지출액(1990~92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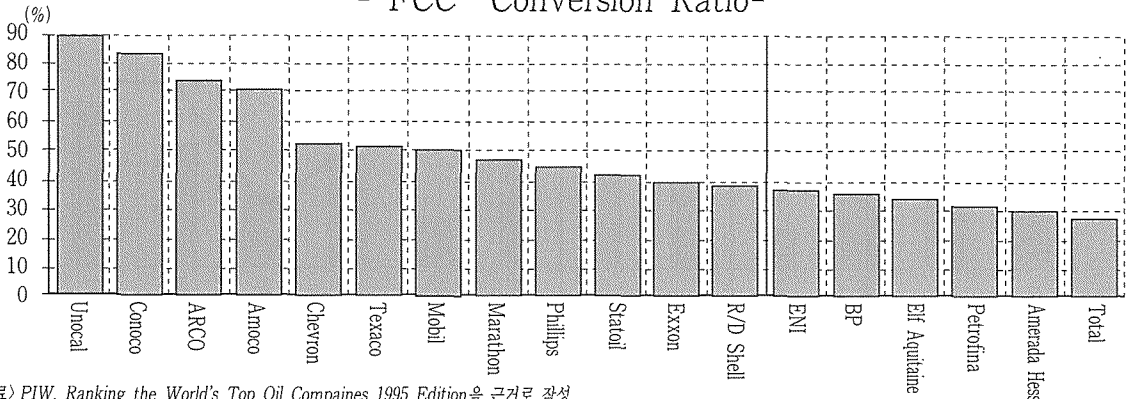


<자료> 각사의 Annual Report 등을 근거로 작성
 <주> 미국 중견석유기업 7社 : Amerada Hess, Amoco, ARCO, Conoco, Marathon, Phillips, Unocal

유럽주요석유기업 5社 : Elf Aquitaine, Total, ENI, Statoil, Petrofina
 메이저 6社 : BP, Chevron, Exxon, Mobil, R/D Shell, Texaco

<그림-22> 구·미 석유기업에 있어서 석유정제능력의 고도화 상황(1993년)

- FCC Conversion Ratio -



<자료> PIW, Ranking the World's Top Oil Companies 1995 Edition 을 근거로 작성

에 휘발유를 공급(자사 브랜드의 휘발유공급을 제외)하지 않기로 하고 있지만, 유럽 전체에서 구조적인 잉여 휘발유는 35~40만 B/D에 이르렀다고도 얘기되고 있고, 실제로는 하이퍼마켓등의 독립소매업자는 독립계업자로부터 공급을 계속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영국 휘발유시장에 있어서도 하이퍼마켓의 세어는 1995년에 25%에 달하고 있고, 일부의 견해에 의하면 2000년까지 3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이퍼마켓과 석유기업이 판매하는 휘발유품질을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하이퍼마켓이 양판과 낮은 인프라코스트를 배경으로 경제적으로 고품질휘발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21>은 구미석유산업에 있어서 하류부문의 자본지출액을 본 것이다. 1990~92년 평균의 연간자본지출액은 메이저가 122억 달러,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이 29억 달러,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이 47억 달러이다. 미국 국적의 메이저와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에 의한 미국의 하류부문의 투자는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2~95년에 있어서 *Chevron, Texaco, Amoco, ARCO, Unocal, Phillips, Marathon*의 7社에 의한 미국 국내의 하류부문 투자목표를 보면, 투자내역별로는 코스트삭감, 정제설비의 업그레이딩, 저

장유통시설로의 투자가 1989~91년 수준에 비해 1~2할 감소, 디젤유의 탈황설비, 리포플레이트 휘발유 대응설비, 폐수처리등의 설비투자는 역으로 1~2할 증가한 것도 알 수 있다.

1995년에 들어와 특히 유럽에 있어서 정유공장 폐쇄문제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휘발유수요가 낮아 (1995년 1~5월의 유럽의 휘발유수요는 전년동기간에 비해 2.7%감소)지고 있고, 디젤유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유종간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에 있어서 2차 설비등 업그레이딩에 대한 투자를 과잉으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도 지적되고 있어, BP의 시산에 의하면 2000년까지 유럽에서 30만 B/D의 잉여 업그레이딩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그림-22>는 구미석유기업에 있어서 석유정제능력의 고도화상황을 살펴본 것으로 *Unocal, Conoco, ARCO, AMOCO*를 시작으로 미국의 중견석유기업의 *FCC Conversion Ratio* (원유처리능력에 대한 분해설비능력(유동상식 집축분해설비 능력으로 환산)의 비율이 높은 석유정제의 고도화가 현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 메이저 및 유럽의 주요석유기업의 *FCC Conversion Ratio*는 30~50%의 수준이다. ♣

<국제에너지 동향분석, 1995년 11월호>

맑고 푸른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인류 마지막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맑고 푸르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 합시다.

- 가정에서는 합성세제, 주방세제를 적정량 사용합시다.
- 공장 및 사업장에서는 유해폐수, 폐유처리를 철저히 합시다.
- 선박 및 해양시설 관리자는 기름 취급, 폐유 및 폐기물처리, 오폐수 처리를 철저히 합시다.
- 기상 악화시나 협수로등에서는 선박의 안전운행에 유의합시다.

○ 강이나 비닷가 유원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되가져 오도록 합시다.

기름, 폐기물 등 오염사항을 발견 또는 선박, 해양시설등에서 발생시 일시 및 장소, 양과 확산상태, 오염원 등을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합시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신고 :
Tel.(032) 883-1846

-해양경찰청-